

남구로시장, 쇼핑의 천국으로 변신

통행로도 넓히고 깨끗하게 포장 ... LED 보안등, CCTV, 방송시설도 갖춰



추석을 맞아 구로구 남구로시장이 확 달라졌다. 구로구는 3일 “대형마트와의 경쟁 속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진행된 ‘남구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단계를 4일 완료한다”고 밝혔다.

남구로시장은 1970년대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로구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구로구는 대형마트의 공세와 경제침체 속에 조금씩 기울어져가는 남구로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0년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구로구는 우선 남구로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국비, 시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2010

년 8월 ‘인정시장’에 등록했다. 2011년 초 사전컨설팅을 거쳐 2011년 6월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1단계 사업에 착공했으며, 10개월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4일 준공식을 갖는다.

1단계 현대화 사업으로 남구로시장에는 지상 2층, 면적 4,207㎡, 길이 355m, 높이 17m의 규모의 아케이드가 설치됐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통행로의 폭이 넓어지고 바닥도 깨끗하게 새단장됐다. LED 보안등, CCTV, 방송시설도 갖춰졌다. 간판 등 노후시설물의 정비도 이뤄졌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넓어지고,

환해지고, 깨끗해졌다”면서 “이제 햇빛 쨍쨍한 날도, 비가 많이 오는 날도 불편함 없이 시장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바닥 정비로 가판대 물건들로 가득 차 3명이 나란히 걷기 힘들었던 통행로도 이제 7명이 거뜬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어졌다”고 덧붙였다.

시장 상인들도 쾌적해진 환경이 시장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1단계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33억5,000만원, 국비 16억5,000만원, 시비 4억9,500만원, 구비 3억8,500만원 기타 특별 교부금 6억원이 투입됐다. 시장상인들의 부담금 2억2,000만원도 포함

됐다.

구로구는 올해 말까지 시설현대화 2단계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2단계 사업은 구로동 731-5 일대 면적 330㎡, 길이 55m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남구로시장 일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안에 위치한 구로시설관리공단 부지 내에 지하주차장도 건립하기로 했다.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주차장이 생기면 남구로시장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길은 기자

대림동에 야간주차공간 확보, 주민 편리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역 곳곳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의 야간개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대림3동 우성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10면을 인근 주택가의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2년 동안 개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1면을 늘리려면 설치비용이 1억 원 이상 소요

되어 기존의 공터를 활용하거나 사무실 건물을 야간에 개방하는 등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번 대림동 우성아파트는 단지 내 주민들의 협조로 체육 공간인 테니스장을 용도변경해 주차장을 확장했다.

주차장 공사를 위해 구는 예산 1천 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야간에 주차장 이용 시 한 달 요금은 4만원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차난 해

소를 위해 교육기관, 대형건물 등의 야간개방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대림동, 당산동, 신길동 등 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구는 주차난 문제가 구 차원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우니 민간 건축물, 종교시설, 학교 등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문려 기자

제2회 중국동포 장기대회 개최

지난 8일 (사)대한장기협회가 주관하고 중국동포신문과 (사)대한장기협회대한중국동포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회 북경전 화국배”민속장기대회가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참가선수들이 무려 118명, 그 중 한국 선수들이 30여명을 차지했다.

구로구 이성구청장과 민주당 박영선국회의원의 축사가 경기대회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성구청장은 동포들과 하나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모두가 단합하여 노력하자고 호소하면서 추석

에도 그리운 고향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내게 되는 동포들을 위로하면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영선국회의원은 진심으로 동포들을 위로하고, 동포들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동포들이 어려운 문제나 곤란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설 것이라는 약속을 두어 말했다.

재한동포장기협회 김정룡회장은 개막사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

석하여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본인이 장기를 즐겨서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의 문화취미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3년 전에 장기협회설립을 하게 되었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참가자 모두가 승부를 떠나 민족의 예의에 준해 자기의 실력을 뽐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기는 오전 9시 30분, 재한동포장기협회 이동철부회장의 경기규칙에 대한 설명에 이어 대한장기협회 전만환사무국장의 대국개시를 알리는 장쾌한 징 울림으로 경기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의 경기에 임하는 태도들은 사뭇 진지하였다. 대회의 준최대로, 한 사람도 어긋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웠다.

경기는 적분순환제로, 참가자 모두가 7분 대국을 치러 합친 점수 중에 제일 높은 선수부터 순위가 가려졌다.

오후 4시, 5분 경기가 끝나면서 이미 6명 정도의 우승후보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연결에서

은 정국봉씨의 경기실력도 단연 돋보였다.

오후 6시 30분, 경기가 종료되면서 순위가 결정되었다. 일반부 우승은 44점으로 정국봉씨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도기룡씨, 3위는 이명호씨, 4위는 이승환씨, 5위는 주상호(한국인)씨, 6위는 유광진씨, 7위는 조용해씨, 8위는 이상화씨(한국인)가 각각 차지하였다. 우승, 준우승, 3위는 트로피,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이 수여되었고 4위부터 8위까지 상금 10만원이 수여되었다.

노인부 우승은 박순서씨(한국인), 준우승은 이용권씨, 3위는 임수산씨가 각각 차지하였다.

최고령자는 77세의 홍문표씨(한국인), 최연소자는 27세의 이상화씨(한국인)다.

북경전화국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장기대회는 문명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을 잃지 않는 선수들의 참여로 추석전야의 즐거운 경기마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본사기자

9.30(월)부터 출근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 14회 증회

서울시는 9호선 급행열차의 출근시간대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9.30(월)부터 07~09시 급행열차를 증회하여, 일반:급행열차 운행 비율을 2:1→1:1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출근시간대 일반열차에 비해 1/2배 적게 운행됐던 급행열차가 더 자주 운행돼 급행을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 및 운행 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9호선은 서울 강서~강남구간을 빠르게 연결하는 대표적인 노선으로, 급행열차 운행의 경우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240%에 이르는 등 매우 혼잡한 실정이다.

일반열차는 24개역에 모두 정차하지만 급행열차는 9개역만 정차하여 일반열차보다 16.6km/h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김포공항~신논현역까지 일반열차가 약 50여분 소요되는 반면 급행열차를 이용할 경우 약 30분

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급행열차에 승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일반·급행열차 운행비율 조정으로 인해 기존 출근시간대 급행열차는 22회, 일반열차는 46회를 운행되던 것이 앞으로는 일반·급행열차 모두 각각 36회씩 운영하게 돼 급행열차가 14회 증가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일반열차가 10회 줄어들게 되나 출근시간대 급행열차 운행간격이 기존 10분→6.7분으로 단축되고 수송능력도 3천6백여 명 이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행열차 운행횟수 증가에 따라 기존 일반열차 수요의 10% 정도가 급행열차로 전환될 것으로 가정하면,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현재 236%에서 200% 아래로 4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배차간격이 늘어난 일반열

차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 이외의 시간대 및 주말과 공휴일에는 현재와 같이 일반:급행열차 운행비율을 2:1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하철 9호선은 '09년 7월 개통 이후, 연평균 승객이 15% 씩 꾸준히 증가해 '13년 8월 현재 일평균 37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2·3단계가 개통될 경우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2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14년 말에는 일반:급행열차 비율을 전일 1:1로 확대 운행하는 한편 3단계 개통에 대비하여 전동차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열차 운행비율 조정으로 출근시간대 전 역사의 열차도착시간표가 변경됨에 따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호선 역사 및 차량 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서울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자체면허 시험을 통한 빠른 운전면허 취득!

경찰척지정 자동차운전학원

전국에서 가장 빨리 취득!!

충분한 연습량에 의한 집중 교육으로 초보자도 기능:1일~2일 도로주행 2일이면 합격 누구나 합격이 쉬운 학원자체시험으로 안전하게 합격합니다.

편리한 셔틀버스 제공

편리한 무료셔틀운행으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강남구 실시간 운행합니다.

운전감독이 둔하시거나 점 많은 특별운행 특별교육 성실성의것 품격높은 명품교육 책임지겠습니다.

맞춤수강 등록! 주말반 새벽반 야간반 자유반

친절상담
궁금한 것들은 바로 전화하세요

070-7711-7554
010-6866-0815

셔틀버스운행지역



1호선: 장동역, 석계역, 방악역, 도봉역, 도봉산역, 망월사역, 외룡역
2호선: 삼성역, 건대역 4호선: 유류역, 행문역, 장동역, 노원역
5호선: 군자역 6호선: 석계역, 태릉역, 왕강대역
7호선: 태릉역, 공릉역, 아계역, 중계역, 노원역, 마들역, 수락산역, 장암우성아파트, 청담역, 건대역, 어린이대공원역, 군자역, 중악역, 먹골역

1종보통
학과+기능+도로주행
=2~3일완성

2종보통
학과+기능+도로주행
=2~3일완성

대형면허
대형면허
3일완성

방문운전연수
단기반 = 3일완성
정규반 = 5일완성